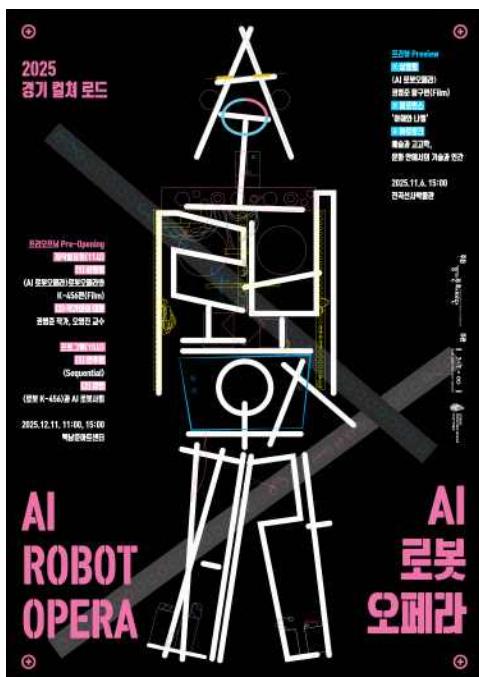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2025 백남준아트센터 '2025 경기 컬쳐 로드 AI 로봇오페라' 프리 오프닝 개최		
문의	행사: 이혜현 학예연구사 t.031-201-8553 m.010-4432-0415 취재: 김지수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6750-0450		
배포	2025. 12. 3.	쪽수	총 6매

다시 만나는 백남준 <로봇 K-456>, 기술과 예술을 잇는 AI 로봇 이야기



- 2025 경기 컬쳐 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남준의 정신을 이어받은 《AI 로봇 오페라》 프리오프닝 12월 11일(목)에 열려
- <로봇 K-456> 복원 과정을 담은 기록 영상 상영 및 《AI 로봇오페라》 작가와의 대화 (작가:권병준, 패널: 오영준)
- <로봇 K-456>를 모차르트 퀘헬번호 456의 관점에서 오마주한 김은준의 연주 퍼포먼스와 문화로봇공학적으로 <로봇 K-456>를 바라본 장효진 소장의 강연 진행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12월 11일(목) 백남준아트센터 랜덤엑세스홀에서 2025 경기 컬쳐 로드 〈AI 로봇오페라(Robot Opera)〉 프리오프닝(Pre-Opening)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앞두고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AI 로봇 오페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로봇 K-456〉을 통해 1964년 『로봇오페라』* 퍼포먼스에서 보여준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백남준의 정신을 잊고자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경기도형 문화예술을 발견하고 실험적이면서도 비주류 장르를 지원하며, 문화 지역에 새로운 문화 경험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2025 경기 컬쳐 로드 사업 중 하나인 이번 〈AI 로봇오페라(Robot Opera)〉 프리오프닝은 〈로봇 K-456〉 복원 과정 상영회를 시작으로 권병준·오영진, 김은준, 장효진 등 총 4명의 작가 및 연구자, 비평가가 참여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영상 상영회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인 〈로봇 K-456〉 1964(1996)의 복원 과정을 최초 공개한다. 이번 복원은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제작된 『예술-기술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작품 구입 당시 제공받은 슈아 아베(Shuya Abe)의 매뉴얼과 회로도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슈아 아베는 백남준의 기술 조력자이자 일본 전기공학자로 〈로봇 K-456〉 작품 제작을 협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복원 사업에는 사일로랩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다. 〈로봇 K-456〉은 현대미술사에서 최초로 제작된 '움직이는 로봇'이다. 이번 공개 영상을 통해 〈로봇 K-456〉 복원 의의를 살펴볼 수 있으며 로봇의 움직임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복원 프로젝트는 서거 20주기를 맞아 예정된 퍼포먼스에서 백남준의 〈로봇 K-456〉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 대한 참여의 기대를 증폭시킬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작가와의 대화는 작가 권병준과 오영진 비평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권병준은 서거 20주기(2026년 1월)를 맞아 〈로봇 K-456〉과 권병준의 로봇이 함께 출연하는 로봇 마당극 〈유령극단, "심각한 밤을 보내리(가제)"〉(2026)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지난 11월 5일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 경기 컬쳐 로드 사업 프리뷰에서 퍼포먼스의 일부를 〈아해와 나엘〉이라는 제목으로 선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백남준 서거 퍼포먼스 제작 발표회의 일환으로, 작품 구성 및 AI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창작하게 된 배경과 백남준과 〈로봇 K-456〉에서 받은 영향 등을 함께 이야기해 본다. 패널로 참석하는 오영진 비평가는 AI를 활용한 창작 영역에 지평을 연 인물로, 기술의 발전이 예술생태계에 주는 영향력을 주제로 백남준과 권병준 작가의 작품 속 이야기를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김은준 음악가의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이 퍼포먼스는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아 2026년 1월에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공개 예정인 〈시퀀셜(Sequential)〉(2026)의 일부이다. 이 공연은 피아노 연주자이자 컴퓨터 음악 작곡가 김은준의 작품으로, 피아노와 비올라의 협연과 전자음악으로 구성된다. 김은준은 백남준의 〈로봇 K-456〉이 모차르트 케헬 번호 456에서 따온 것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작품을 연주한다. 그는 클래식 음악과 전자 음악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운드 퍼포먼스로 관객을 맞을 예정이다. 협연하는 비올라 연주는 변정인 연주자가 맡았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강연으로 구성된다. 연구자 장효진은 '<로봇 K-456>과 AI로봇사회-불완전한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백남준의 로봇을 문화로봇공학적 (Cultural Robotics)으로 해석한 관점을 강의한다. 장효진은 인간이 로봇과 함께하는 문화, 즉 로봇 문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백남준의 <로봇 K-456>이 보여주고 있다고 바라본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장효진은 현대사회에서 노동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로봇산업과 달리 백남준의 <로봇 K-456>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위한 로봇으로, 인간과 기계의 소통을 한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2025 경기 컬쳐 로드 《AI 로봇오페라》 프리오프닝은 백남준의 <로봇 K-456>의 복원 과정을 최초 공개함에 의미가 있다. 기술과 예술을 잇는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로봇 K-456> 관련 강연과 '움직이는 로봇' 작품을 오마주한 관점에서의 연주 퍼포먼스가 이어져 백남준의 작품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남준아트센터는 2026년 1월 28~29일 백남준 서거 20주기 행사를 준비 중이며 권병준과 김은준의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1월중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자세한 정보는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njp.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봇오페라》*란?

1964년 백남준이 기획하고 실행한 작품으로 미국 뉴욕의 워싱턴 스퀘어에서 펼쳐진 퍼포먼스이다. 리플릿을 행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 20채널의 무선 조종과 10채널의 데이터 리코더를 포함한 <로봇 K-456>이 살롱 무어먼과 함께하는 거리 공연이 포함되었다.

퍼포먼스의 황금기였던 1960년대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이 현장은 현대미술사에서 최초 등장한 신기술인 '움직이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술의 맥락 아래 음악과 기술을 포용하는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2025 경기 컬쳐 로드 《AI 로봇오페라》 프리오프닝 개요

- 행사명: 2025 경기 컬쳐 로드 《AI 로봇오페라》 프리오프닝
- 행사기간: 2025년 12월 11일(목) 11:00, 15:00
- 행사장소: 백남준아트센터 랜덤 액세스홀
- 참여자: 권병준(작가), 오영진(서울과기대 융합교양학부 초빙조교수), 김은준(음악가), 장효진(비소로 소장)
- 주최/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참가: 무료, 경기문화재단 및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사전 예약
- 문의: 031-201-8553
- 세부일정

오전 프로그램(11:00~)			
구분	시간	내용	
상영회	60분	〈로봇 K-456〉(상영시간: 10분)	
작가와의 대화		작가와의 대화 (작가: 권병준, 패널: 오영진)	
오후 프로그램(15:00~)			
구분	시간	내용	비고
퍼포먼스	70분	〈시퀀셜(Sequential)〉 (작곡 및 연주: 김은준, 비올라 연주: 변정인)	
강연		〈로봇 K-456〉과 AI 로봇사회 - 불완전한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상상하다(강연자: 장효진)	

○ 참여자 소개

권병준

권병준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음악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 작업을 해왔다. 이후 2000년대부터 소리학과 예술&과학을 공부한 후 전자악기 연구개발 기관인 스타임(STEIM)에서 공연과 사운드 등에 관련 실험적 장치를 연구, 개발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2011년 귀국한 이후, 새로운 악기와 무대 장치를 개발·활용하여 음악, 연극, 미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기획·연출하였고 소리와 관련한 하드웨어 연구자이자 사운드를 근간으로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2018년부터 로봇을 이용한 기계적 연극을 연출하고 있다.

오영진

2015년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과목 [소프트웨어와 인문비평]과 [기계비평]을 만들었다. 컴퓨터게임과 웹툰,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의 미학과 정치성을 연구하고 있다. 시리아난민을 소재로 한 웹반응형 인터랙티브 스토리 <햇살 아래서>(2018)의 공동개발자이다. 가상세계에서 비극적 사건의 장소를 체험하는 다크투어리즘 <에란겔: 다크투어>(2021.03.20-21)와 학술대회 [SF와 지정학적 미학] 연계 메타버스 <끝나지 않는 항해>(2021.12.06~19), <AI공포라디오쇼>(2022.08.04. 아트센터나비), <ChatGPT WAR 1부>(2023.06.23. 플랫폼엘, KADA, NMARA), <창조적 경계: AI문장채굴꾼>(2024.10.10. CT페어 1섹션)을 연출하며 기획자이자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예술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북스, 2024)를 집필했다.

김은준

김은준은 추계예술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로지과 컴퓨터 음악 작곡으로 예술전문사를 취득한 작곡가이다.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CT대학원 AI팀에서 음악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전자음악협회(KEAMS) 연구원으로서 전자음악과 기술 기반 예술을 탐구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라이브 전자음악 공연, 사운드 설치, 오디오비주얼, VR 및 메타버스 기반 퍼포먼스, AI 등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의 작품은 국내외 페스티벌과 무대에 발표되었다. ICMC, SICMF, 아트코리아랩, 아르코아트앤테크 선정작,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Ars Electronica, SIGGRAPH Asia, 브레멘국립음대, 노들섬 갤러리, KT&G 상상마당 등으로 이어졌다. 그는 음악, 미디어, 기술의 조화를 통해 컴퓨터 음악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알고리즘이 협력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운드와 퍼포먼스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변정인

변정인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라이프치히음대 디풀룸 및 마이스터 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드레스덴필하모니 단원, 마인츠 국립교향악단 종신부수석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수석, 서울비르투오지, 서울모던앙상블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장효진

장효진은 기술과 미디어, 그리고 문화콘텐츠의 접점에서 새로운 창의적 가능성을 탐구하며 현재 비로소라는 문화 브랜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 박사로, 현재 한양대학교 에듀테크혁신팀 강사로 활동하며 기술 기반의 학습과 문화예술 콘텐츠 융합을 연구한다. 과거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와 콘텐츠 디자인랩 연구원으로서 예술과 기술, 인간의 상상력이 만나는 지점을 꾸준히 실험해왔다.

※ 로봇 K-456

백남준의 첫 번째 로봇 작품인 〈로봇 K-456〉은 1964년 《제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일본 엔지니어들과 공동 제작한 이 작품은 20채널로 원격 조정되는 로봇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8번 B플랫 장조〉의 코헬 번호를 따서 이름 붙였다. 이 로봇은 거리를 활보하며 라디오 스피커가 부착된 입으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재생하고 마치 배변을 하듯 콩을 배출하기도 했다. 〈로봇 K-456〉은 백남준과 각종 퍼포먼스에서 함께 공연했고 1982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의 회고전에서는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퍼포먼스에 등장하였다. 백남준은 이 퍼포먼스를 “21세기 최초의 참사”라 명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계적 합리성의 허구를 드러내고 인간적 고뇌와 감성을 지녔으며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화된 기계를 제시하고자 했다.